

고
관
절
결
핵

글 ▣ 정비연
(독자,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2003년 가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다. 신랑의 퇴근시간을 기다리며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게 큰 즐거움이었던 신혼생활이었다. 그런데 2004년 봄 무렵부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져 한 번 자기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잠을 잤고, 목이 너무 타서 밥 대신 오렌지 주스만 몇 잔씩 마시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신혼인지라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외출을 감행했는데, 그때마다 진통제를 2알씩 먹어야 했다.

7월 어느 날인가는 거실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오른쪽 다리의 심한 통증과 두려운 마음에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서 두 시간 동안 운 적도 있다. 그 날 나는 119 구급대에 실려 고려대 응급실로 갔다. 검사를 마치고 진통제를 맞으니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검사도 별 다른 이상이 없어 MRI 예약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서 집까지 왔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MRI검사 결과가 나올 무렵,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도록 통증이 심했다. 매일 한 알씩 먹던 진통제도 그날은 효과가 없었다. 신랑은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직행했다. 전에 진통제를 놓아주었던 인턴이 다가와 “이유 없이 아픈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형외과 주치의를 불러 치료를 하고는, 그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다.

피를 열 통은 뽑았던 것 같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척추네 곳과 고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했다. 담당 선생님은 염

증 치료뿐 아니라 결핵검사까지 요구했다. 30년 가까이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던 내가 난데없이 결핵검사라니……. 그러나 3일 뒤 나는 결핵판정을 받았다. 선생님께서는 고관절에 염증과 결핵염증이 같이 퍼져서 척추까지 옮겨졌으며, 척추가 염증에 녹을 것 같으니 침대에 누워서 꼼짝 말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3개월간 꼬박 누워 있었다. 그것도 가슴부터 발목까지 온몸에 깁스를 한 채로.

척추에 있는 염증 빼내는 수술과 고관절 염증을 제거하는 두 차례의 수술을 거쳤다. 1차 수술이 끝났을 때는 관을 꽂은 채 24시간 엎드려 있었고, 두 번째 수술에서는 처음 예상 3시간을 훨씬 지난 8시간에 걸친 만만치 않은 사투였다. 다행히 척추와 고관절의 염증은 잘 제거되었다.

결핵하면 모두들 폐결핵과, 감기, 기침, 그리고 전염 등의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내성까지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결핵이었다. 신혼이라 전염에 엄청 신경이 쓰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관절 결핵은 척추나 고관절 뼈끼리 부딪쳐야 전염된다는 사실이었다.

퇴원후 내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다니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약을 먹었다. 내성이라서 꼭 완치시켜야 한다는 마음 뿐이었다. 밥도 꼬박꼬박 잘 먹었다. 그리고 현재, 2년 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는 판정이 났고, 나는 지금 임신 7개월째인 산모이다. 혹시 약이 독하거나, 몸속에 남아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약을 중단하고도 10개월 이후에 임신을 해 아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

신혼때 병원 생활로 거의 1년 동안 잘 움직이지 못한 나를 위해 애쓴 신랑과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아직 오른쪽 고관절은 방바닥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리를 하면 조금 불편한데, 요가를 하면서 되도록 순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핵약을 계속 먹었던 1년여 시간 동안 나는 어렸을 때 무심코 샀던 크리스마스 썰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순히 예쁜 그림에 반해 샀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썰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고 있다. †